

“개산조 뜻이어 부산불교 중흥하자”

부산지역 대형사찰 일제히 개산대재 진행

부산지역 사찰들이 일제히 개산대재 행사를 열고 창건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10월 17~21일 1370주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했다. 21일 개산대재일에는 30여 년 동안 단절됐던 영사재(影祀祭)를 개산조당 앞에서 새롭게 재현하기도 했다.

통도사 영사재는 개산조 자장율사에게 옛 방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됐다. 통도사는 1943년 구하 스님이 작성한 <영사 의식집>을 토대로 이를 복원했다. 행사에서는 대중을 위한 명교를 시작으로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헌향과 헌다, 보례진언 및 천수경 낭독, 주지 영배 스님의 헌다, 표백문 낭송, 파산계 승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도사는 53명의 스님들에게 영축 장학금 54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법요식에는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영배 스님 및 고영립 통도사 신도회장 고영립,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통도사는 영축문화축제가 기간 국화로 경내를 장엄하고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가사배경, 어린이 수계식, 괘

불이온, 패발행 특별전시, 부도헌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개산 1337주년을 맞아 10월 17일 개산대재 법요식을 개최했다. ‘귀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개산대재는 환속한 범어사 칠성도 2쪽을 봉안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개산대재 법요식에 앞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대웅전까지 칠성도 이운식이 진행됐다.

통도사, 影祀祭 최초로 복원 범어사, 칠성도 환수 이운식 장안사·삼광사 등도 첫 행사

했다. 이운식에는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을 비롯해 주지 수불 스님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금정의 금(金), 금어의 금(金), 금선의 금(金)은 눈에 보이는 금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주인공의 마음자리, 참다운 눈으로 금빛을 보게 되길 바란다”고 법문



통도사 개산대재에서는 최초로 영사재가 재현됐다. 영사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에 원효무애백차를 올리는 백차헌다례가 진행됐다. 장안사는 김하병 서예가에게 원효문화상을, 신진초 4학년 우현빈 어린이에게 효행상을 수여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도 10월 21일 개산대재를 처음으로 봉행했다. 삼광사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일제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위안부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며 호국의 뜻을 강조했다. 삼광사는 10월 31일 오후 7시 삼광사 경내에서 전국의 천태 사찰 합창단이 모여 ‘천태 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성미 기자

홍천 명덕사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식

홍천 명덕사(주지 해륜, 대한불교조동종 총회회장)는 10월 11일 명덕사에서 대웅전 낙성법회 및 삼존불 점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과 부종정 덕룡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덕우 스님, 감찰원장 덕성 스님, 교육원장 행문 스님 등 500여 대승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지명 스님은 법어로 “너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를 닦지 않으면, 마치 보배산에 들어갔다 빈 손으로 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주지 해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대웅전 낙성 및 부처님의 점안법요식을 회향하며 하염없는 벽간 감동 속에서 부처님

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수없는 많은 인연들의 동참이 있어 가능한 불사임을 다시 한 번이 자리를 통해 밝히며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해륜 스님은 대웅전 불사에 기여한 이홍문 목수와 조정일 신도회 재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제8회 천년솔향 문화예술제 고운사서 열려

의성 고운사가 주최하고 고운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제8회 천년솔향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제’가 10월 17일 고운사 경내에서 열렸다. 예술제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음악경연 등 3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또 페이스 페인팅과 다식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즐겼다.



무엇의 어린신 30여 명과 함께 고운사를 찾아 어른신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행사 개최식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능인학원 이사장 자현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립 능인고 학생 40여 명은 대구 화성양도원의

한편, 고운사는 10일 화엄문화탐플관에서 사찰음식시연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지사장

“국민화합으로 통일 물결 널리 펼치자”

조계종 총무원·불국사 17일 ‘광복70 통일기원음악제’ 개최



조계종 총무원과 경주 불국사는 10월 17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경관연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기원음악제’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등 5000여 대승이 참석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신라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처님의 대비원력에 의지해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21세기 세계강국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통일기원 문화

예술제를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전문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현대인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려내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본말사에서 모금한 2억 3700만원을 통일기금으로 홍용표 통일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음악제에서는 박상진 동국대 교수의 지휘 아래 국악관현악의 ‘아리랑’ 서곡 등을 비롯해 김정선 수녀의 지휘 하에 ‘뿌에리 칸도레스’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불교·가톨릭·개신교 연합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 불국사 선재소년 소녀합창단과 대구기독교 남성합창단, 충북연합합창단 등 7개 합창단이 출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관회의 사회 통합 의미 되살리자”

부산불교聯, 10월 17일 범어사서 팔관회 재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0월 17일 부산 범어사에서 ‘2015년 팔관회’를 개최했다. 팔관회는 호국영령위령제, 호국기원법회, 팔관제계수계법회, 백희가무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1000여 대승이 참석했다.

팔관회는 먼저 고려 시대 팔관회 문헌을 바탕으로 한 ‘호국 영령 위령제’로 문을 열었다. 호국 영령 위령제에서 참가대중은 호국삼부경 중 인왕반야경 ‘호국품’을 함께 독송하며 국태민안을 함께 발원했다.

이어 ‘팔관제계수계법회’는 전제대화상 무비 스님, 교수사 지현 스님(율사, 부산 관음사), 갈마아사리 수진 스님(범어사 율원장)과 존중아사리에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 무원스님(삼광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호법 스님(경승실장), 정오 스님(기장 장안사) 등 삼화상 칠경사를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전제대화상 무비 스님은 “계는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다”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



은 바로 이러한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타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팔계계를 수지하고 연비를 받아 계를 지키며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수계법회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백희가무가 진행돼 사명대사의 활약을 소재로 한 가무곡과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가 선보였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마지막 행사로 11월 2일 부산시청 나눔녹음광장에서 ‘2015 팔관회 사회나눔 박람회’를 개최한다. 허성미 기자

팔공산 지장선원 당산제 및 효도잔치

지장불교조계종 총본산 팔공산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은 10월 18일 경내에서 ‘제1회 지장선원 당산제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장기도 천도재와 함께 청산 풍물팀 공연, 당산제 육법공양 등이 펼쳐졌다.



한국불교선각회 회장 혜승 스님은 “당산제는 불교문화와 습합된 신앙으로, 일심을 갖고 수행정진해나가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당산제는 한국불교선각회 회장 혜승 스님, 부회장 법진 스님, 총무 성호 스님 등 200여 대승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장선원장 지공 스님은 “지역 어른신들과 신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당산제와 효도잔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 대신기신론 강좌

열린불교아카데미(원장 김윤희)는 10월 19일 부산불교선입인회 법당 포광선원에서 ‘원순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를 개최했다. 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원순 스님이 번역한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대승

기신론 원순소 별기’가 교재로 사용된다. 원순 스님은 “기신론은 모든 경전을 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책”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대승을 바르게 이해하고 큰 믿음을 일으켜 더욱 정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JJUN 난방”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마감재
방열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공 현차가입

특허등록 (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 02
- 03
- 04
- 05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침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영월 : 010-5759-8804	공주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